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3. 여름(Summer)

## 나의 중·노년기 계획



김영선 보나. FMM 영적가족 10기

저는 이제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현재 50, 60대의 기대수명은 100세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건강과 돈, 다른 이들과의 관계 등 나이 들어가며 점검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80대 중반이신 제 모친을 보면서 저의 노년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빌려 쓰는 것이며,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떠남은 하느님 곁으로 가는 것임을 알기에 죽음이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봅니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그려볼 것입니다. 저는 좀 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인데요. 예를 들어 FMM 영적 가족과 만남에 열의를 갖고자 하며, 영적 독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선배들과 깊은 유대 관계 이어가기, 정기적으로 개인 피정 참가하기 등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니어 아카데미(노인대학)의 봉사자로 있는데 기회가 닿으면 성가대 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 중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내년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그런 뒤에 중국어 어학연수를 위해 대만으로 갈 계획입니다. 어학 실력을 향상시켜 현지 성당 미사에 참여하고 그곳 신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좋은 기회가 주어져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좋겠지요.

또 다른 하나는 라틴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영화 <탄생>을 통해 한국의 첫 사제의 삶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사제의 길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는데, 그중에서 신학, 프랑스어, 라틴어, 중국어 등 엄청난 학업량을 언뜻 알게 되니 그 고되고 막중한 삶의 여정이 정말 존경스러웠지요. 또한, 한동일 작가의 <라틴어 수업>을 재미있게 읽은 영향도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프랑스어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와 함께 로망스어 군으로서 그 뿌리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계통의 언어들엔 모어(母語)인 라틴어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합니다. 학업에 이렇게 몰두하는 저를 보며 저의 배우자는 “마르고 닳도록 (공부)하세요!”라고 볼멘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정은 제 여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려는 계획입니다. 그 역시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남은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 곁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져 좀 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 삶에서 오늘 함께 하는 사람과 좋은 감정을 공유하고 좋은 것을 나누며 사는 것만 한 것이 또 있을까요.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처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소중한 이웃이며, 제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존재들입니다.

50대의 나이에 FMM을 알게 된 저는 정말 많은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고, 하느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저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지요. 저의 노년에도 함께 할 FMM 영적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시편 말씀으로 저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물기 또한 마르지 말고 항상 푸르러라.**”(시편 92, 14),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시편 23, 1)



## 부르심의 길을 따라…….

이진아 엘리사벳 수녀



해마다 부활 제4주일에 성소 주일을 지냅니다. 성소(聖召·vocation),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특히 성직자와 수도자, 온 삶을 바쳐 교회와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제직과 봉헌 생활에 투신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를 바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 사목, 성소 계발 책임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올해 성소 주일에는 구로 3동 본당 주일학교 친구들이 관구 공동체를 방문하여 풍요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인 본당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주일학교학생들과 교사, 34명이 왔습니다.

우리 수녀원에 방문한 이들에게 우리를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수녀님들과 만남'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FMM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수녀님께 부탁드렸고 16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소 주일 행사는 성당에서 수녀님들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녀님이 각자의 수도 생활 햇수와 소임에 나누었는데, 소개가 끝날 때마다 친구들이 큰 박수와 환호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조새'라고 소개한 한국에서 첫 수련을 하신 김현숙 마리 데레사 수녀님이 '수도 생활 60년'이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입을 짝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국적)의 자매들과 함께, 교회와 세상의 필요 때문에 다양한 소임지에서 봉사하는 우리 수녀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것에 응답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포스트에서 수녀님들과 친구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도를 하나씩 들고 수녀원 구석구석 마련된 9개의 포스트를 찾아가 수녀님들을 만나고 각자의 부르심을 생각해보라고 초대하였지요. 포스트를 소개하자면, 수녀원 영성을 알려주는 '우리는 조배자'와 '우리는 전교자', 다양한 성소를 소개하는 '부르심'과 '미래의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 '생명의 말씀'과 '동행',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의 조배자'에서는 김현숙 마리데레사와 이기화 데레사 수녀님이 관구 역사실에 전시된 한국 관구 설립 초창기의 감실과 그 앞에서 성체조배 하는 사진에 관해 설명해주었고, 이어지는 포스트로 이성경 에반젤리나 수녀님이 기도실에서 장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전교자' 코너도 2개로 준비하였는데요. 고은희 카타리나, 김수영 요한나 수녀님이 진행하는 포스트에서는 어려움 중에 있는 나라 이름이 적힌 카드 중 하나를 뽑아 그 나라를 세계지도에서 찾고 각자 핸드폰으로 검색한 후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지향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Let's talk in English'로 오순희 베로니카 수녀님과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인도 관구에서 온 Jeeva Mary 수녀님과 영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부르심' 포스트에서 조수정 수산나 수녀님이 다양한 성소에 대해, 사제가 되는 과정과 수녀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 '미래의 나', 남자, 여자 수도복, 수단 모형 중 원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경화 리디아, 이해연 미카엘라, 조란 마르타 수녀님이 도움을 주었는데, 남자 친구들이 수녀님 베일을 쓰고 여자 수도복 모형에서 여자 친구들보다 더 많이 찍더라고요.

'생명의 말씀' 포스트에서는 성소 자매 1명이 말씀 카드를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청원자 신지호 멜라니아 자매는 '동행'이라는 포스트에서 안대를 낀 친구를 도와주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에 함께 가고 있다는 그것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포스트에 참여한 조는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너라.' 포스트에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포스트에 참여한 조는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너라.' 포스트에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미경 베로니카 수녀님이 시원한 음료를 주고 보물찾기를 해서 초콜릿도 나누어주었지요.

포스트 게임을 마친 친구들은 성당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침묵 가운데 부르심의 길을 따른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각자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지향을 적고 봉헌하며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한 주일학교 친구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신부님이 수녀님들의 정성에 감동하고 즐겁게 지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역시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직접 만나 함께하면서 우리가 받은 성소에 대해 감사드리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 수녀회의 이모저모

### 이재문 비리짓다 수녀님의 선종 소식



수녀님은 1962년에 수녀원에 입회하여, 올해 수도 생활 60주년을 3월 19일에 기념하고,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 글라라의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5월 13일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수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필립 1,21)



### 파주(평화의 모후)공동체 축복식

세계 평화와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4명의 수녀님이 순례기도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기 위한 공동체를 파주 문산에 5월 23일 축복식을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친정집과 같은 장소가 되어주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부모·형제의 기일, 명절에 경조사를 함께 하고,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기 위해 “친정집”이라는 사도직을 하려고 합니다. 접경지역인 문산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순례 기도를 하며 지역주민들과 만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수녀님들과 “친정집”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 사별 가족 모임.



먼저 가신 배우자나 가족을 잊지 못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사별 가족 모임을, 서울 가리봉 수녀원에서 4/12~5/ 31(8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에 7명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고인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고인이 남겨준 추억을 나누면서 일상으로 회복할 힘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9월, 부산에서 8주간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락처 : 010-2236-1057(최남주 베로니까) 서울

010-8352-0939(정명숙 헬레나) 부산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3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	(주)모톨초경	가정동빈첸시오	가좌동성당	강경아	강미현	강숙자(조정권)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강향주	검암성당	고대완	고월순	고은하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창용	공해용						
구유희	권순영	권순익	권영오	권진선	금부동	금창호	김경희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나현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연	김동현	루가	김두환(김철형)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선옥	김성애	김성옥	김성용
김성원	김성현	김수경	김순철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	김영순	김영옥	김영운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준
김영춘	김옥림	김옥주	김용수					
김용수(여기정)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인회	김잔디	김재식
김정매(박치현)	김정민							
김정숙마리아	김정연	홍수봉	김정웅(김명신)	김정임엘리사벳	김정택어울회	김정화	김주영	김주희(신경란)
김주옥	김준희	김지영	김지혜	김진금	김진수	김진숙	김진식	김진옥
김춘자루갈다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현희	김호성(박정식)	김호송(윤군자)	김화자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보라	노근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석심	노정애	마전성당	마지아(김재석)	명영희	모서공소	문미형	문성식
문준식	민들레복지회	민병관						
민정웅	바이올가	제주 박금난	박기선	박병옥(송덕규)	박병주	박성분(조국제)	박성준	박성현
박소정	박소진							
박수인	박순옥	박승민	박연애	박영희	박원서	박윤실	박은선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순(임현서)					
박정연	박준우	박찬순	박찬주	박찬희(강동연)	박태분	박해필	박현애	박현희
박화자	박회수	박효정	박희순					
박희재	반종현	방웅	방진	배수정	배운숙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버닝하트이대	변복자	변태식					
빈창숙	사랑나무치과	사회복지모금	서덕순(서득순)	서춘자	서태진	서향란	서혜석	석상령
성영주	손순덕							
소재록(구곡의원)	손은영	손은주	손정례	송경자	송명순비아	송순이	송승운(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신동규	신승일	신아영	신용숙	신유라	신재진	신정동에로니모회	신주선(신유경)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양천애덕회	연희동	영적가족
오말희	오복연	오소영	오숙자	오승훈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우상혁	우영희	운남빈첸시오	원ENG(김진식)	원당동성당	원세경	유경혜
유미경								
유병춘	유복희	유수민	유영재	유은분	유은정	유정열	유주영(이성혜)	유춘성
유혜정	유회숙	육동배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문선미)	윤미숙	윤보미	윤봉수	윤선희	윤순자(양정희)	윤순희	윤정미
윤정희	윤종림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경석	이관환	이광진(홍기원)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동세
이동은	이동준	이동현	이명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란	이미희	이병철	이복순	이상문	이성구	이성남
이성엽	이성호(조봉례)	이승욱						
이승은	이연실	이영복	이영애	이영옥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	이윤신
이윤옥	이은미	이은향	이인권	조혜리				
이인숙	이임수(송재용)	이재옥	이정란(최윤)	이정숙테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	이제희	이종옥	이지아	이지인	이태금	이필단	이향남	이해일
이현순	이현준(이창석)	이혜숙	이홍식					
인용석	인천교구	인천석남빈첸시오	인천재속프란	인혜정	임승옥	임윤섭	임정태	임지원
임진수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문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은숙준메디케어	장현아	재속프란치스코회아음
전순임	전순자							
전영관	전주란	전지훈	전총엽	전해숙	전혜향	정경원	정경필	정광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	정미화	정미희				
정민정	정부강	정성민	정소영	정숙자	정영숙	정옥희	정인순	정재영
정재훈(정치호)	정진명	정진숙	정찬영					
정혜경	정희파키스탄	조건희(최희선)	조근미	조금자	조남섭	조명숙	조상위	조석금
조성자	조일수	조정희						
조중혁	조진면	조진상안자영	조혜영	조화숙	조희공	조희무	종각호약국(기호준)	주)가나스틸
지정희	진성자							
진숙인	진신아	차영자	차용석	천정원	천주교서울대교	청라빈첸시오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명숙	최미양)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영남	최영숙	최영애	최영운(중앙고속)	최영호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은실					
최은실	최인석	최일순	최정선(윤각의)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최효순	추기연
추영숙	추종현	축복합니다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평화장터	하옥경	한국순교성인빈첸	한규영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옥선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한효진	허순자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